

# 한국가족의 특징과 결혼문화: 개인화인가 계층화인가?

숙명여대 김혜영(khy222@sm.ac.kr)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한국가족 변동의 특징: 결혼·출산의 지연 혹은 회피
3. '가족위험'의 사회와 결혼
4. 삼포세대의 결혼과 가족
5. 맺음말: 소결 및 제언

# I. 들어가는 말: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가족



빠른 변화의 속도



전지구적 변화의 폭



변화의 추동력과 제어 가능한 주체의 모호성

과거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세계

“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우리가 과거라고 기억하는 것이 미래에도 변함없이 재현될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니클라우스 루만

➤ 새로운 세계와 조우한 현대인에게 가족은 어떠한 의미와 형태로 어떻게 다가오는가?



## ➤ 가족변동을 둘러싼 논쟁 촉발: 위기인가? 재구조화인가?

- IMF를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가족해체 현상에 주목. 90년대 후반 이후 이를 둘러싼 논쟁 촉발
- 2000년 이후에도 지속되는 가족변화는 결과적으로 위기담론의 약화로 귀결
- 최근에는 한국가족의 현대성을 규명하려는 시도와 함께 다양한 가족현실의 구체적인 변화양상 분석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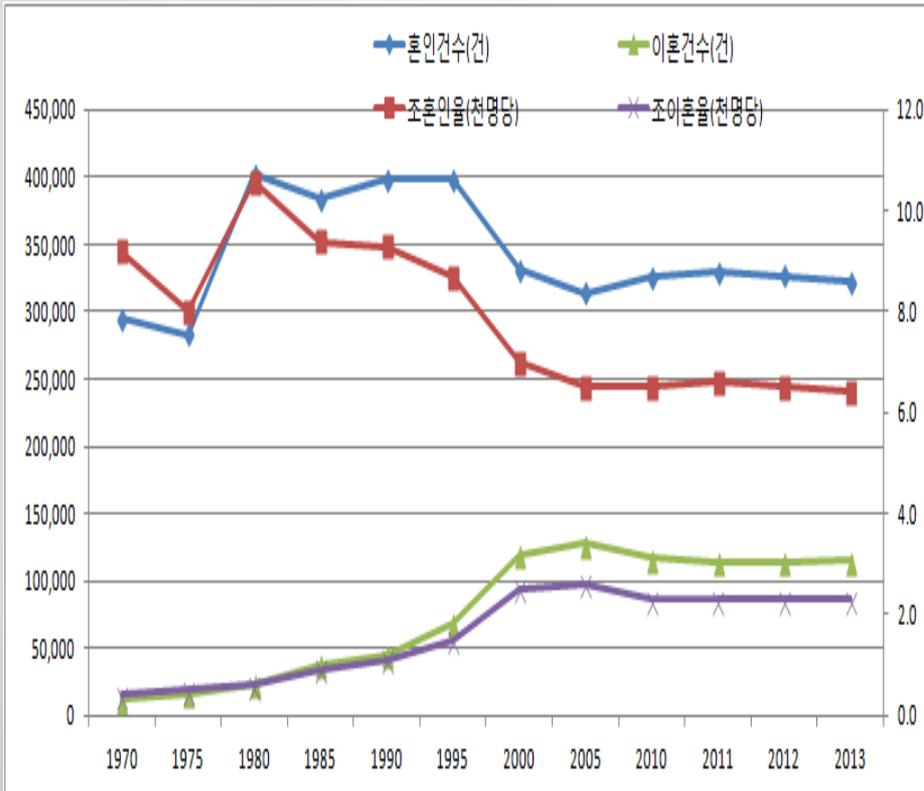
## ➤ 가족변화의 특징적 양상

- 가족 현실의 복잡성 증대와 개인화 양상 가시화
  - : 만혼, 이혼 및 재혼 비율 증가 - 가족형태의 다양성 증가
  - : 혼인 및 출산의 지연과 회피 - 재생산토대로서의 가족기능 약화
  - : 가족구성의 유연성 증가 및 안정성 약화 - 가족 돌봄기능 약화
  - : 2인 생계부양자 가족의 증가- 시간압박(돌봄 노동시간의 부족),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도전, 돌봄 가치의 위축
  - : 불안정한 고용환경은 가족의 재생산 기능 위축
- 가족규범 및 가치, 가족기능의 변화는 한편에서 기성 가족에 대한 도전과 회의로 이어짐과 동시에 더욱 중요한 '가족판타지'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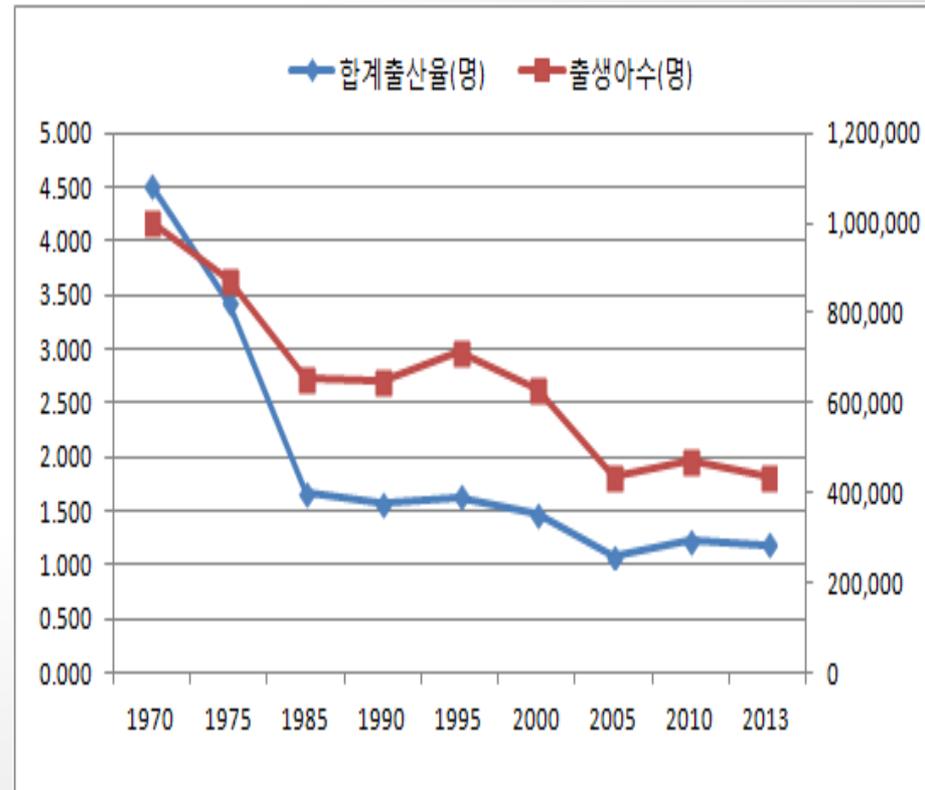
## II. 한국가족변동의 특징: 결혼·출산의 지연 혹은 회피

- 2014년 혼인 30만 5천 5백 건으로 전년대비 1만 7천 3백 건 감소, 이혼은 11만 5천 5백 건으로 전년 대비 2백 건으로 0.2% 증가(통계청, 2015)

<그림 1> 혼인 및 이혼건수와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변화(1970-2013) (단위: 건수, 명)



<그림 2> 총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의 변화(1970 - 2013) (단위: 명)



- 초혼 연령의 지속적 증가(매년 0.2세씩 증가):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음

<표 1> 평균 초혼 및 재혼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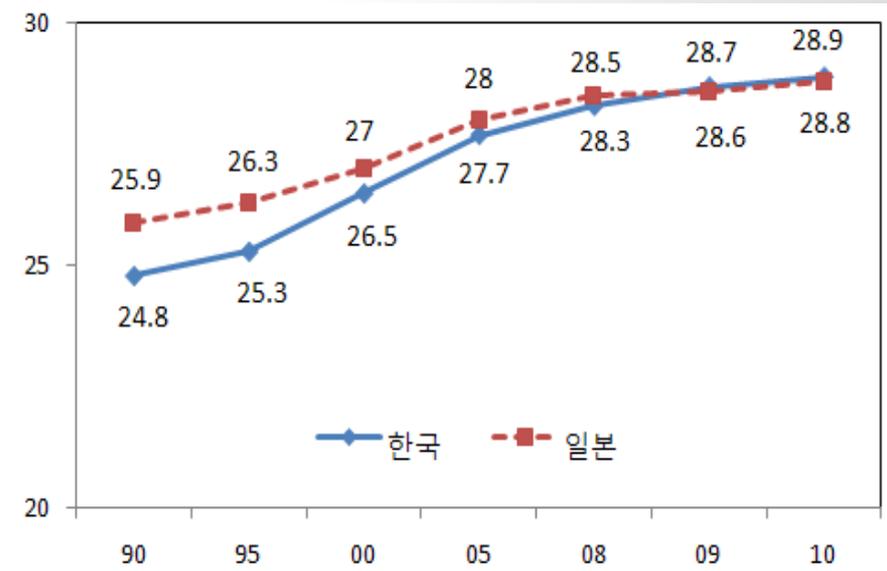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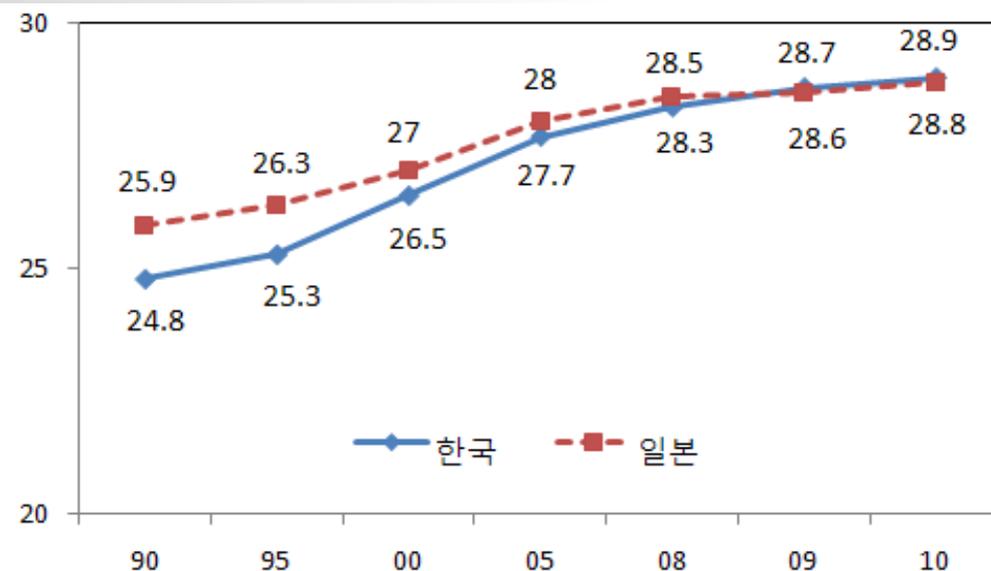
(단위 : 세)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감*	
													전년 대비	10년전 대비
초혼 연령	남자	30.5	30.9	31.0	31.1	31.4	31.6	31.8	31.9	32.1	32.2	32.4	0.2	1.9
	여자	27.5	27.7	27.8	28.1	28.3	28.7	28.9	29.1	29.4	29.6	29.8	0.2	2.3
재혼 연령	남자	43.8	44.1	44.4	44.8	45.0	45.7	46.1	46.3	46.6	46.8	47.1	0.4	3.4
	여자	39.2	39.6	39.7	40.1	40.3	41.1	41.6	41.9	42.3	42.5	43.0	0.5	3.8

출처: [2014년 혼인이혼통계], 통계청,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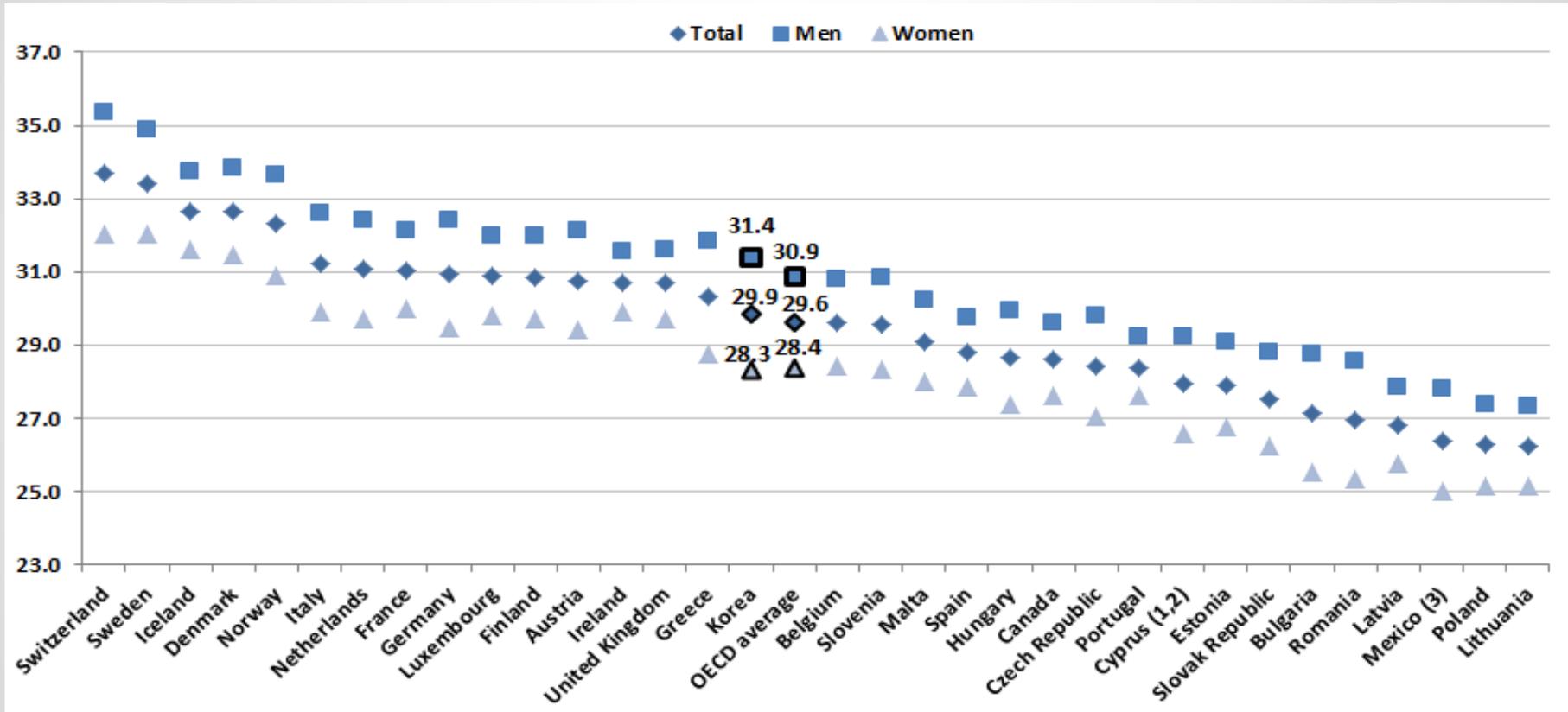
<한·일 남자 평균 초혼연령 비교>

<한·일 여자 평균 초혼연령 비교>



- 한국 만혼화의 추이와 함의는 OECD국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구조적으로 강제화된 욕망의 지연 혹은 박탈?

<그림 3> OECD 국가들의 초혼연령 (단위 : 세)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1)

주: 1) Korea: 통계청(2008), 「인구동향조사」로 재계산

2) OECD average; OECD국 중 한국 포함 33개국의 평균값에서 직접계산(김은지, 최인희, 김혜영(2013) :26에서 재인용.

## “결혼 및 가족규범 약화: 세대와 성별 차이 심화”

- 15세 이상 인구 중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62.7%  
그러나, 미혼여성은 결혼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 50.9%에 달함

<표 2> 결혼에 대한 견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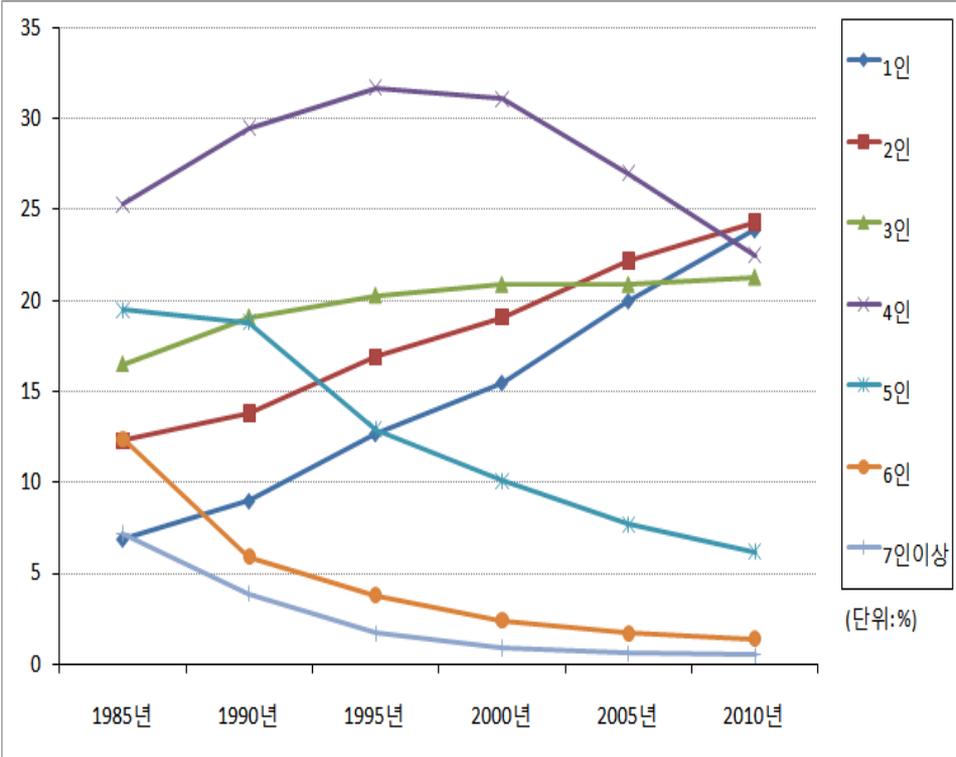
연도	계	결 혼 태 도		
		해야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 지 말아야 한다
2002	100.0	69.1	27.2	1.9
2006	100.0	67.7	27.5	2.2
2010	100.0	64.7	30.7	23.3
2012	100.0	<b>62.7</b>	<b>33.6</b>	<b>1.8</b>
남자	100.0	69.0	27.7	1.3
여자	100.0	56.6	39.4	2.2
미혼남자	100.0	<b>60.4</b>	<b>34.1</b>	<b>1.8</b>
미혼여자	100.0	<b>43.3</b>	<b>50.9</b>	<b>2.6</b>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2012.

# 가족규모의 압축적 축소와 재생산시스템의 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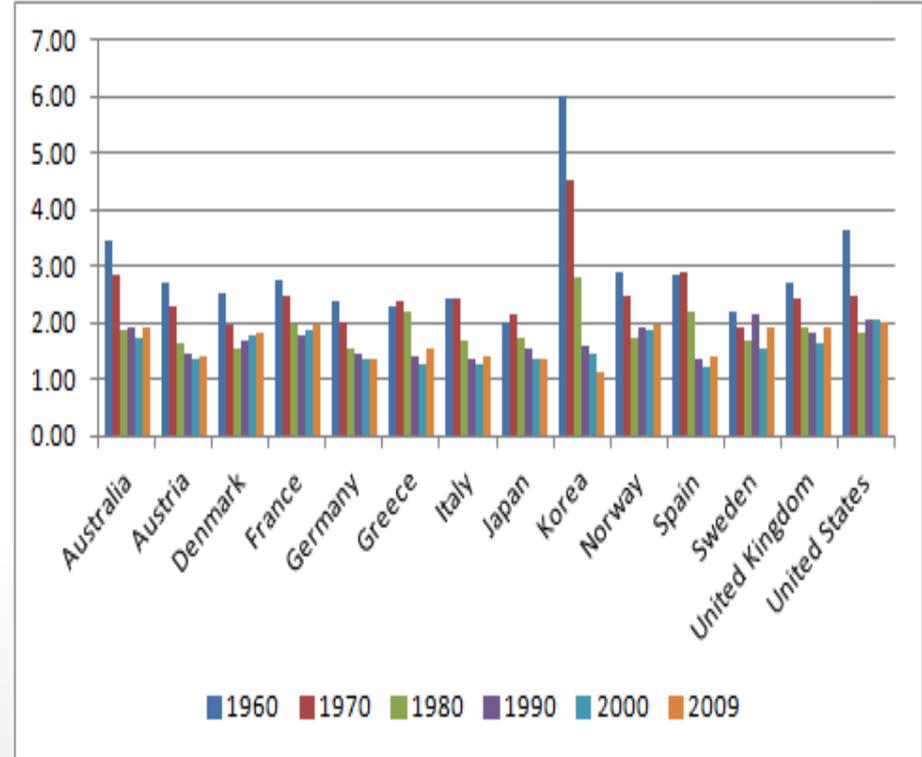
- 기혼자 출산은 평균 2명 수준 유지, 여성의 첫아이 출산 평균연령은 30.5세(OECD 2위)
- 평균 가구원 수는 2010년 기준 2.7명(1970년 5.20명, '80년 4.40명), 일본 2.42명('70년 3.41명 '80년 3.22명), 싱가포르 3.5명(1980년 4.90명) (신윤정, 유재언, 김혜영, 윤자영, 2013)
- 3,4인 가구의 시대는 가고 1, 2인 가구가 총 가구의 절반에 달하는 '미니가구'의 시대로 진입

<그림 3> 가구원수별 가구비중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2012

<그림 4> OECD 주요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의 변화: 1960-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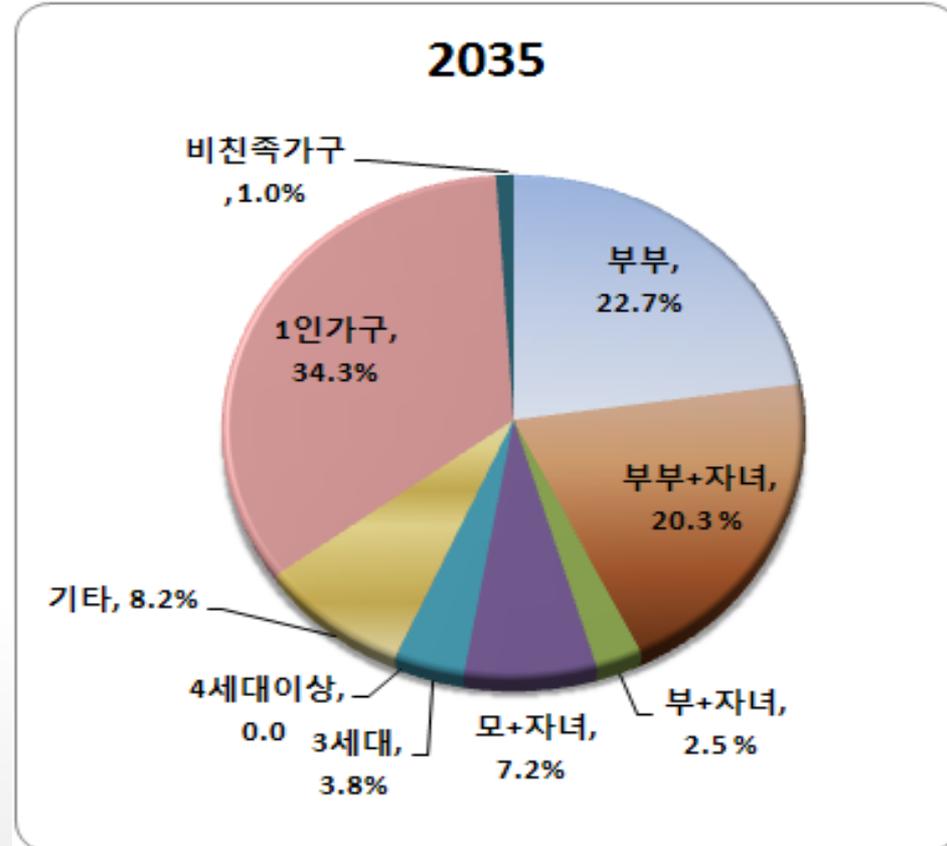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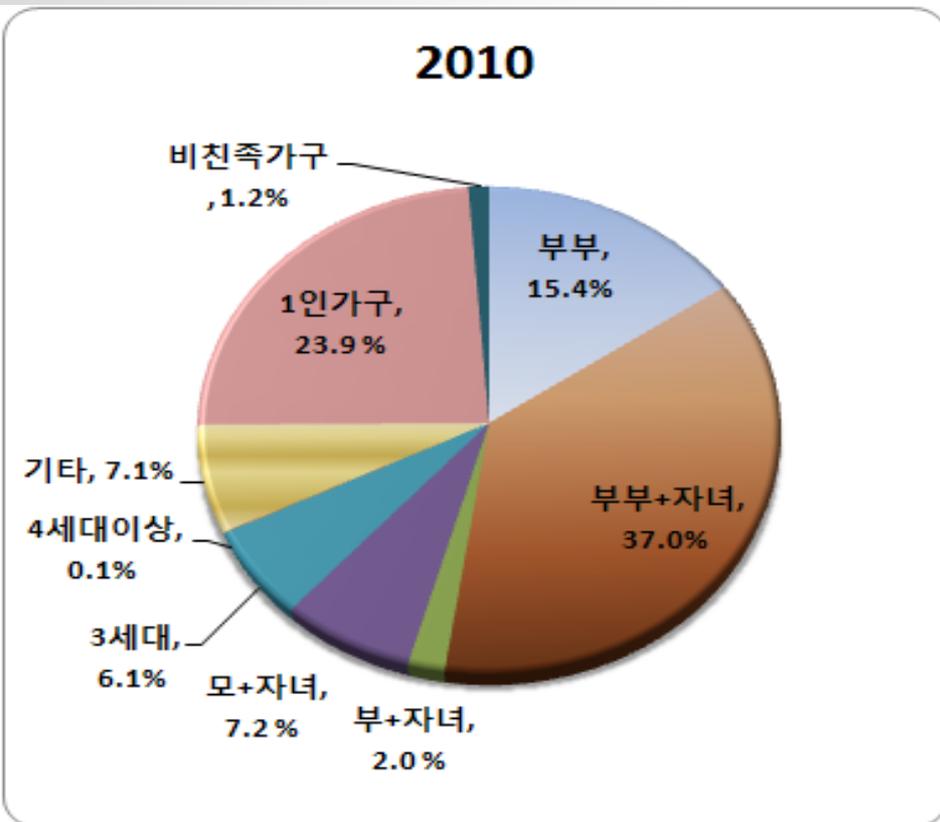


출처: OECD. 2010. Family Database.

## ➤ 미래 가족? 성 ♯ 출산 ♯ 가족

-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는 2000년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 3인 가구는 완만한 증가
- 1인 가구: 1980년 총 가구(일반가구) 4.8%에 불과, 90년 9.0%, 2000년 15.5%, 2005년 20.0%, 2010년 23.9%로 10년 전에 비해 8.4%나 증가

<그림 5> 2010년 가구유형별 분포 및 2035년 가구유형 추이



• 자료 : 통계청, 장래 가구추이(2012)

### III. 가족위험의 사회와 결혼

-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근원지로서의 가족  
: '가족'이 위험의 완충제가 아닌 가족 자체가 제도와 구조로서 경험하는 '위험(social risks)을 초래'
-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의한 가족의 내파  
: 비정형 삶의 증가, 가족고유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회의와 가족판타지 동시 부상

재생산기능  
약화

→ 만혼, 저출산 추세가 보편화되는 현실에서 가족의 전통적 기능수행에 대한 사회적 회의

2인생계부양  
자구조로의  
전환

→ 2인생계부양자구조의 확산과 성별 불평등, 계층격차 심화

보살핌의  
기능적 공백

→ 특정한 가족형태를 넘어 가족 보살핌 기능의 보편적 약화현상, 그리고 이로 인한 돌봄 정책의 확장

## ➤ 현대사회의 특성: 신자유주의 시대와 개인화

- A. Giddens: 사적 영역의 민주화, 개인화
- U. Beck, Z. Bauman : 개인화, '방황하는 개인들의 시대'  
: 신자유주의 시장의 논리가 가족 내부로 침투한 개인화 시대(바우만, 2000)  
*" 개인은 법률상의 개인일 뿐 사실상의 개인은 되지 못함, 개인은 끈임 없이 결정을 내리는 자기운명의 주체임을 요구 받지만, 이의 현실화하는 자원은 가지고 있지 않음. 우리시대의 불안정성, 유동성(액체 근대성)은 개인들의 위치가 아니라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 자체가 끝없이 변화하는 시대"*
- : 노동시장에서 대다수의 개인들은 개인화된 위험을 짊어지기 위해 자신의 삶을 조정, 특히 개인의 친밀성과 가족생활의 끊임없는 조정과 재구성 요구(Beck, 1997)
- 양극화 사회로 진입(Warren & Tyagi, 2003; 유경준, 2008; 신광영, 2003)  
: 계층적으로 양극화된 가족체계: Two-tier family system(Furstenberg, 2014)

## ➤ 가족의 현대성: 사랑과 결혼의 의미변화

- 과거 결혼을 통한 가족구성은 경제적인 이유나 '도덕 및 규범', 즉 당위의 영역
- 오늘날에 와서는 개인의 욕구와 취향에 의한 일련의 합리적 선택과정  
: 현대인들은 주관적인 판단과 의미부여의 과정을 통해 결혼을 선택,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연애와 결혼은 개인 스스로가 그 논거와 일련의 행위양식을 구축해야 하는 기획과업(프로젝트)으로 변모(A. Giddens, 1997)  
: 더욱이 세계시장주의 사회에서 팽배된 물신성은 당사자간의 진정한 관계 맺기의 주요한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쟁주의로 인한 시장경력 우선권을 강요하고 있어 사랑의 실현과 가족구성을 방해('사랑'에 대한 희구는 소실되지 않았으나, 사랑이나 정서적 친밀성의 구현은 쉽지 않은 현실

## ➤ 한국사회의 중층적·압축적 변동: 근대에서 후기근대사회로

- 60-80년대 권위주의적 개발국가 사회 -> '87체제: 형식적 민주주의 -> '97사회: 신자유주의 시장사회로 전환(김혜영, 2014)
-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개인의 안위와 보호는 국가, 시민사회가 아닌 가족의 몫  
근대화 과정에서도 한국의 '가족중심성'은 강하게 유지  
'가족주의'는 한국식 경제발전과 사회문화의 핵심적 키워드
- 97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개인보호의 핵심적 기제로서 '가족' 적실성 약화  
남성생계부양자, 여성의 돌봄 전담이라는 성별분업에 근거한 핵가족의 정당성은 크게 약화  
: 여성의 일 또한 전생애적인 과업으로 부각
- 가족주의의 약화? 변용?

## ➤ 오늘날 한국가족의 특질은 무엇인가?

- 후기근대적 특성과 한국가족의 특수성 결합(장경섭, 1991), 개발자유주의의 과도한 가족의존성과 신자유주의 결합(장경섭, 2009, 2011)
- 가족의 형태적 다양성과 이의 탈제도화 경향에 주목(김혜영, 2011)
- 가부장적 가족주의 종말(김혜경, 2013), 가족지향적 개인화(김혜경, 2013)
- 가족주의의 근대적 변형(함인희, 2013)

## IV. 삼포세대의 결혼과 가족

- 고단한 현실로 인한 '사랑'에 대한 판타지는 소실되지 않아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생애과업이 되고 있음

### - 2012년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 : 미혼남녀(20-44세) '비혼 및 만혼'의 요인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해서'라는 진술에 대해 남성 87.8, 여성 83.5%가 동의.  
또한 '결혼비용 부담'에 대한 동의정도는 남녀 모함 86-87%에 달함(2009년 조사 결과보다 상승세).
- : 이에 비해 "결혼가치의 약화" (남66.5%, 78.5%), '시댁, 처가중심의 결혼생활 부담' (남 49.4%, 여 72.2%)의 경우 성별격차가 두드러지고 있음.
- : 실제 결혼계획을 미룬 경험이 있는 남녀의 경우 '본인 소득이 적어서'(남성 24.3%, 집안의 반대 14.6%, 살집장만을 못해서(12.5%) '실직이어서'(10.4%), 여성은 '집안의 반대(27.1)', 집장만 외 결혼비용의 부담(18.8%), 상대의 낮은 소득(14.1%)의 순으로 답함
- : 경제적 여건 미비가 실제 결혼 지연의 주요 요인이 됨('12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 \* 실제 결혼커플의 혼인 평균비용 4,468만원 남) 9,588.1만원 여)2,883.3만원
  - \* 가구소득별로 편차: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은 500만원 이상가구의 1/3.4
  - \* 결혼비용부담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체면유지를 위한 계획 초과"

- 오늘날의 높은 구직경쟁은 일종의 상시적인 전쟁과 같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
-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심각한 취업난은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변화는 물론 개인의 정체성과 자존감 훼손
  - \* 최근 구직을 준비한 청년세대의 10명 중 8명은 취업준비를 하면서 자존심을 가장 많이 포기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문화일보, 2013, 1.15)
  - \* 대학 4년생 10명 중 4명 이상은 졸업 연기 계획(CBS 미디어, 2013.16)
- 20-30대 미혼 집단인 청년세대들은 원가족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사회규범과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구성이라는 인생과업 사이의 간극 혹은 이탈자로 등장
  - \* 결혼필요성은 남성: 고위,(준)전문직, 상용직 종사자가 기타 집단보다 높게
  - 여성: 근로(사업)소득이 낮을수록 결혼필요성은 높게 동의
  - \* '결혼'에 대한 남녀의 기대격차와 경활참여의 차이가 교차되어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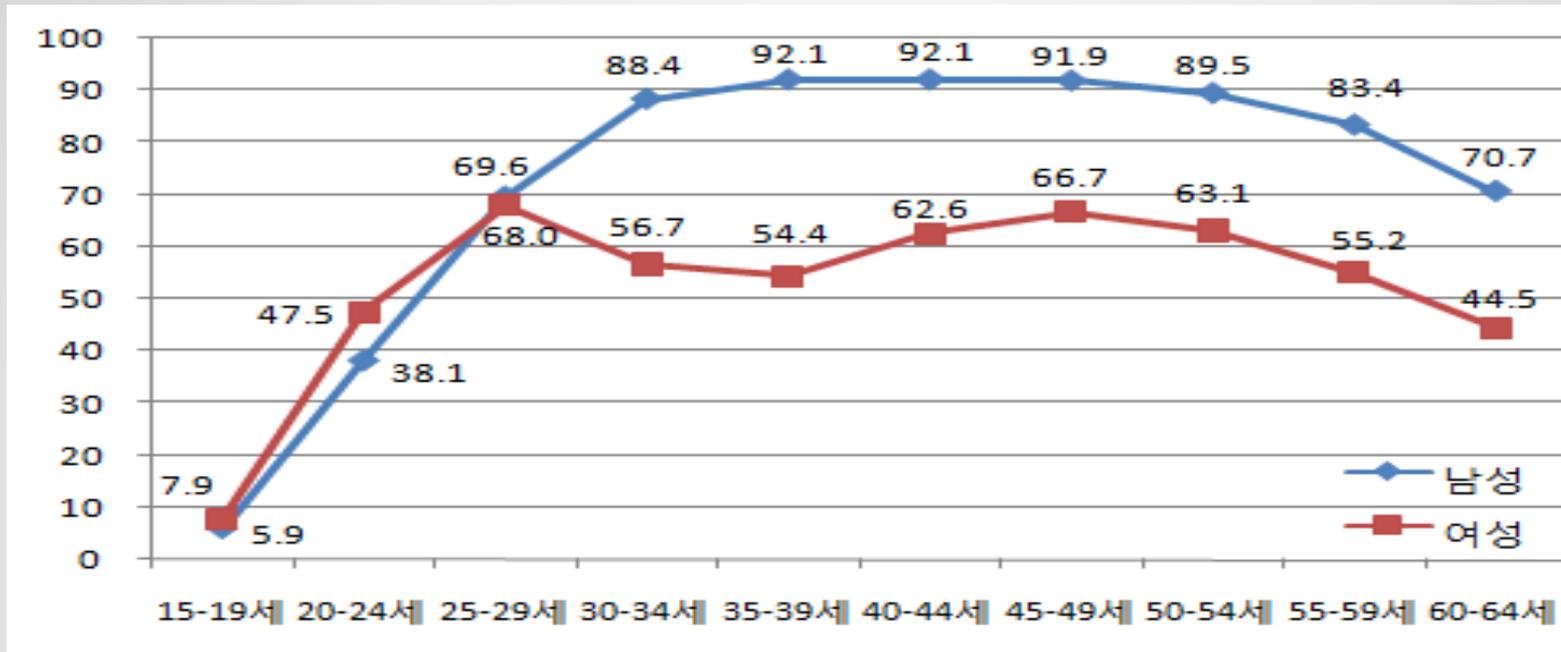
<표 3> OECD 주요국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

구 분	한국	OECD	일본	프랑스	미국	호주	캐나다
전체여성('11)	54.9	61.8	63.0	66.1	67.8	70.5	74.2
대졸여성('10)	62.1	82.6	69.4	85.2	80.0	81.6	82.8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 표 4> 2013년 성별·연령별 고용률>

(단위: %)



- 2005년도 인구센서스 결과분석: 평균 결혼연령을 초과하는 30대 이상 49세 이하 남녀집단의 미혼비율은 지난 10년간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 핵심 가임 연령을 초과하는 30-34세 인구층 가운데 남성의 미혼율은 95년 19.4% 200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41.2%, 여성은 3배 가량 증가 19.1%(통계청, 2010).

→ 누가 혼자서 살아가는가?

## 누가 무배우로 살아가는가? : 1인 가구를 중심으로

- 1인 가구: 전 연령에 걸쳐 배우자 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
  - 현재와 같은 이행 패턴의 변화는 2005년부터 시작(통계청, 2011).
  - : 1995년- 40세 미만 1인 가구의 주된 혼인지위는 미혼, 45-49세 유배우, 50세 이상은 사별
  - 2010년- 45세 미만의 1인 가구의 주된 혼인상태 미혼, 45~59세 이혼, 60세 이상 사별자
-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분포
  - 총 414만 2천 가구 중 남성 192만 4천 가구, 여자 221만 8천 가구로 여성가구의 비중이 53.5%에 달함. 하지만 1인 가구의 전체증가분으로는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아(103.6%) 여성의 증가분인 93만 8천 가구(73.3%)를 추월.
  -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19.2%는 70세 이상의 고령자. 그러나 성별, 연령별 분포의 교차분석 결과는 **남성 1인 가구는 30대** 연령층 비율이 가장 높고, **여성**은 **70세** 이상의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아 1인 가구 발생요인의 성별, 연령 격차 확인
- 1인 가구의 교육수준
  - 1인 가구의 **37.2%**는 **대학이상의 교육수준**, 26.6%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초등학교 졸업학력은 64만 가구(15.4%)로 가장 낮음
  - : 평균적인 학력상승 반영과 동시에 1인 가구에서 젊은 세대의 비중이 증가한 결과.
  - 1인 가구의 교육수준 또한 연령별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즉 65세 노인 인구층은 초등학교 이하, 35세 이하의 인구층은 대학이상의 학력자가 가장 높음

➤ 1인 가구의 주거상황 및 소득상황

- 센서스 결과, **1인 가구의 34.4%가 보증금 월세** 형태로 생활. 더욱이 이러한 월세 거주자는 2000년 45만 3천 가구-> 2010년 97만 3천 가구로 214.6% 증가  
: 1인 가구의 주거 질은 지속적으로 하락
- 2010년 주거소유 상황: 1인 가구의 가장 높은 비중은 월세가구(42.5%), 4인 가구는 자가비율(62.6%)이 높게 나타남
- 가계동향조사 자료 이용 가구원 수에 따른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 분석 결과(반정호, 2012), 1인 가구의 2010년 기준 경상소득은 1,190,000원(다인 가구 3,491,000원), 특히 경상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을 제외한 근로 및 사업, 재산소득 등과 같은 시장 소득은 1,061,000원에 불과(다인 가구 시장소득의 33.2%에 불과한 수준)
- 이들의 월평균 가계소비는 1,089,000원(다인가구 2,961,000원의 35.5%에 불과)  
: 소비지출액은 843,000원으로 그들의 가처분 소득 1,106,000원의 76.2%에 달하고 있어 미래 대비 혹은 위험상황을 위한 저축의 여력 역시 미약.

--> 결혼/비결혼과 같은 혼인지위는 과연 개인 선택적 행위의 결과인가?

: 개인화 추세와 함께 고용불안정 등 시장상황에 의한 구조적 압력의 결과 무배우로 살아가는 인구층이 증가한다는 추론 가능

-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88만원 세대, 삼포세대, 초식남/건어물녀 등의 신조어가 갖는 가족사회학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이들 세대의 결혼이 갖는 의미와 부담을 조명해봐야 할 것임

## V. 맺음말 : 소결 및 제언

-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과도한 헌신과 투자 풍조에 대한 비판적 성찰  
: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과도한 부담 초래  
: 자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녀 스펙 쌓기와 불안정한 계급 재생산에 매진 하는 중산층 가족문화의 무비판적 동조 경계
- 부모, 아동기부터 경쟁제일주의에 노출된 자녀세대- 서투른 관계 맺기 세대  
: 지나치게 물질적 가치에 일찍이 노출되어 경제적 지위에 좌우되는 청년세대의 삶 되돌아 보기, '공감'능력의 강화
- 평등한 성역할 문화 조성의 미비는 여성/남성의 왜곡된 결혼관으로 표출  
: 노동시장 진입부터 직무배치에 이르기까지 성차별적인 고용 및 사회관행은 결혼 시 남성에게는 과도한 생계부양 부담, 여성에게는 여전한 가사부담역할을 기대
- 현실의 고단함은 새로운 출발로서 '결혼'관행의 과도한 시장화, 상품화 조장
- 결혼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 : 100세 시대 영속적인 혼인관계의 맹세?  
: 개인 만남의 특별한 단계나 진전으로의 결혼. 결혼 의미 축소, 가볍지만 기억할 수 있는 이벤트로서의 결혼 의례 정착. 가문대 가문의 결합이 아닌 개인대 개인 결합
- 혼주 중심의 결혼문화가 아닌 당사자 중심의 결혼문화 구축  
: 진정한 독립의 계기로서의 결혼, 독립하는 자녀를 축하하는 부모의 후견자 역할

- 가볍게 시작해도 가족필요나 위기 시 다양하게 개입될 수 있는 가족정책의 구축
- 양극화의 해소 및 고용안정 해법 제시

## ▪ 변화의 물꼬 찾기: 다양한 책임 주체별 변화 전략

(개인)가족, 지역, 국가의 동시적 변화



### 개인적 차원

- 탈물질주의 가치 확산
- 성평등한 역할 취득
- 결혼 및 가족이데올로기 전환
- 개인 삶의 공공성 복원

### 가족 차원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며 쉬는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기능적 가족주의 청상
- 친밀한 가족관계 복원

### 지역사회 차원

- 가족친화적인 마을만들기
- 다양한 가족의 삶을 수용하는 행정문화조성
- 개인과 개인, 가족브릿지 사업 강화

### 국가적 차원

- 양극화 해소
- 고용안정성 확보
- 일가정양립제도 인프라 구축
- 사회안전망 강화
- 공공돌봄의 확대

**THANK YOU!!!**